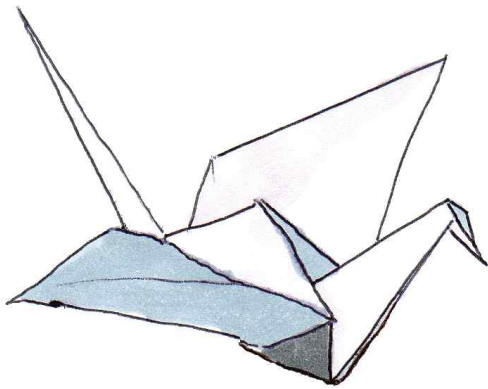


신학으로 배운 어린이 성경 동화 시리즈

2

인간의 타락



김문 글/그림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신학으로 배우는 어린이 동화

♥ 성경 동화

1. 하나님의 창조
2. 인간의 타락
3. 구원의 시작
4. 하나님의 백성
5. 이스라엘의 실패
6. 진정한 이스라엘
7. 예수님의 구원
8. 오순절의 성령님
9. 예수님의 증인들
10. 완성될 하나님나라

♥ 교리 동화

21. 종교, 계시, 성경
22. 삼위일체 하나님
23.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24.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25. 예수님은 누구신가?
26. 예수님의 사역
27. 성령님은 누구신가?
28. 성령님의 구원 적용
29. 교회란 무엇인가?
30.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 교회사 동화

11. 교부들의 유산
12. 이단들과의 싸움
13. 순교자들
14. 제국의 기독교
15. 교회 회의
16. 십자군 전쟁
17. 수도원 운동
18. 교회 개혁
19. 교단의 분열
20. 구학파와 신학파

♥ 실천 동화

31. 성도의 윤리와 도덕
32. 목회와 교회정치
33.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34. 설교에 대하여
35. 세례와 성찬
36. 교회의 권징
37. 심방과 상담
38. 직업과 소명
39. 전도
40. 선교

바로 이렇게 인간의 유익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키는 것이 신학인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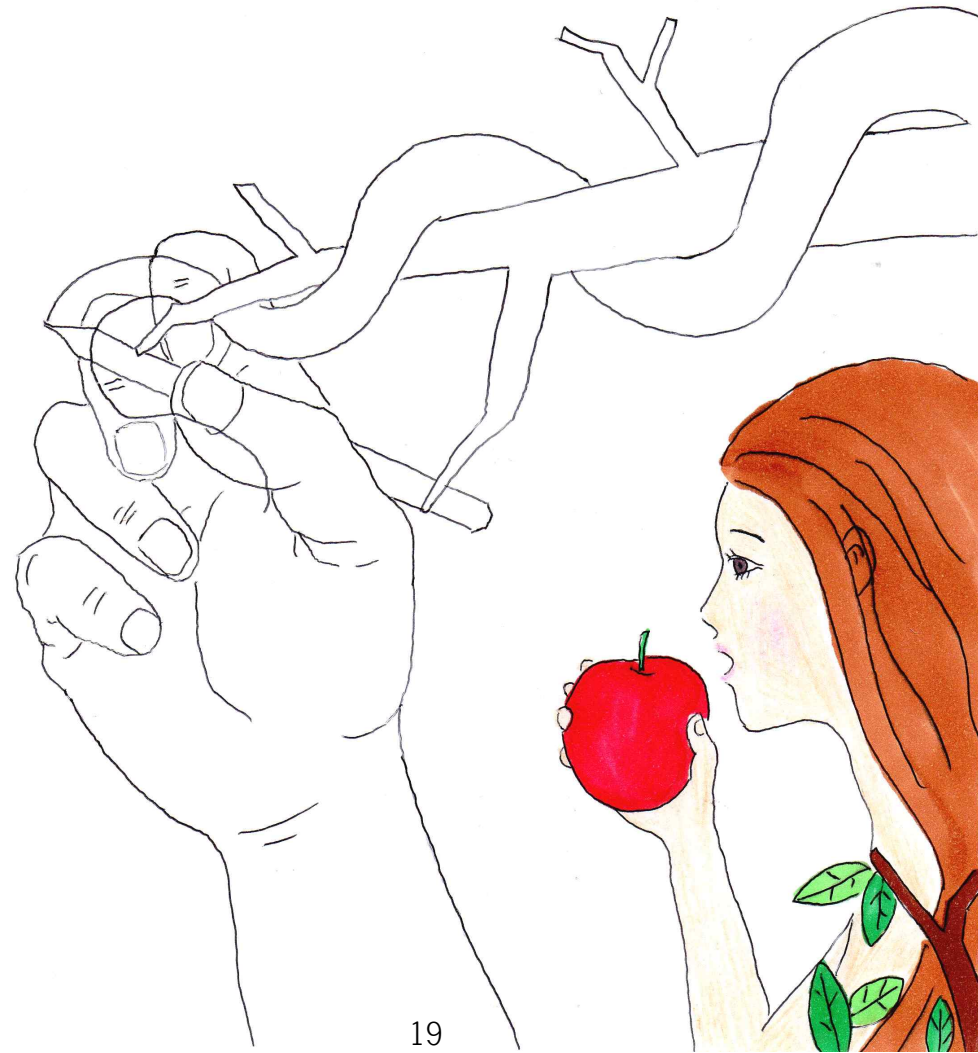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진 세상을 잘 관리하도록
사람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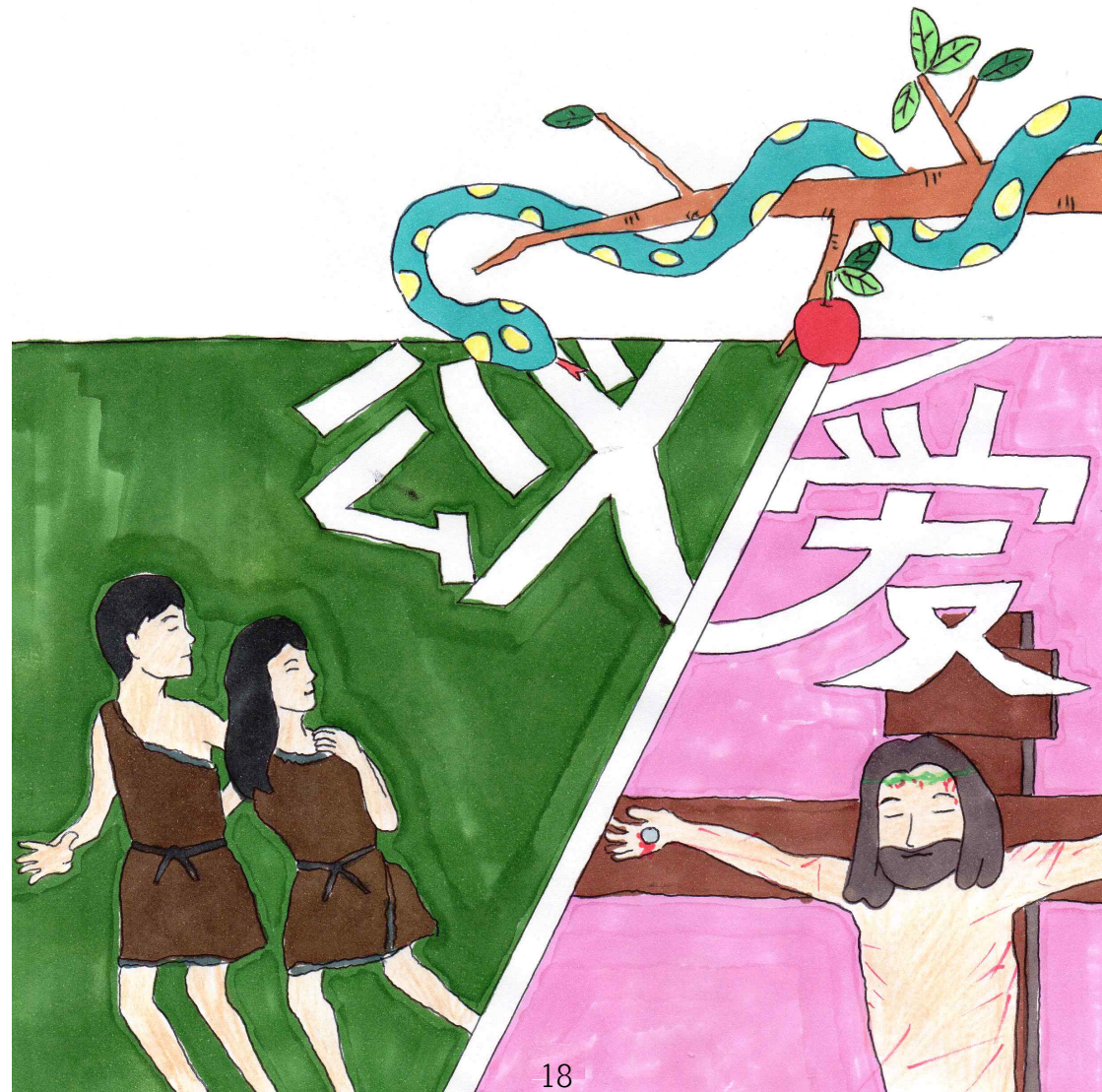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관리하면서
창조세계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허용적인 작정인 셈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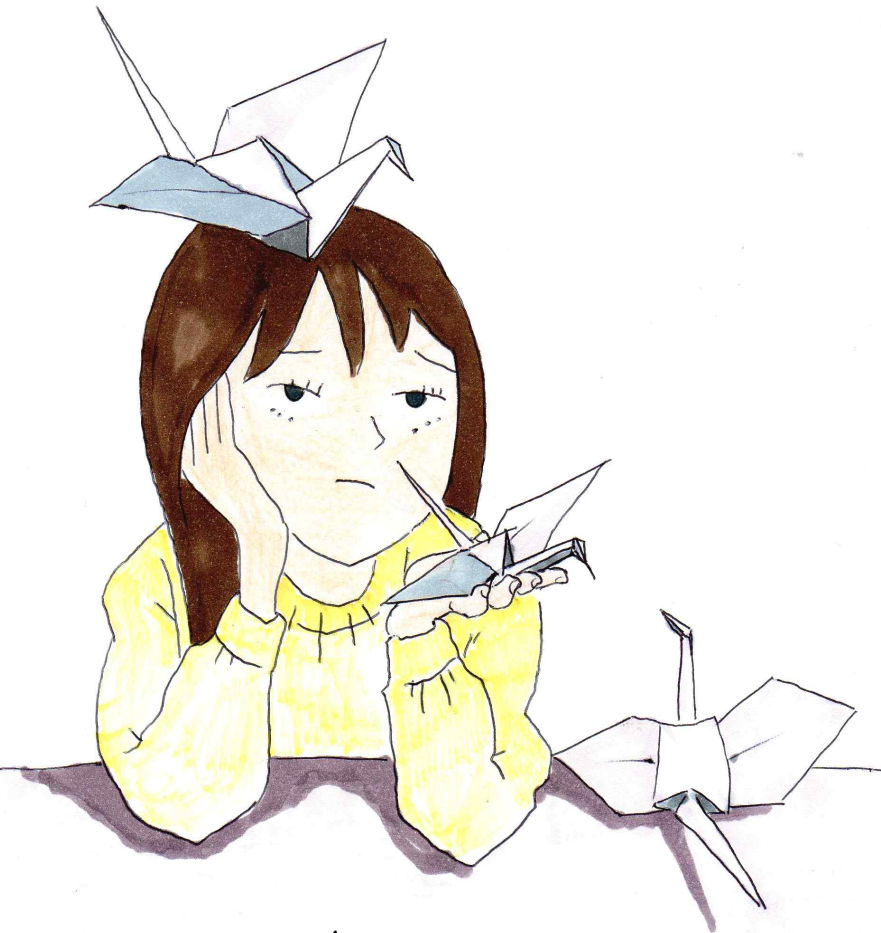
선악과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선악과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파괴된 세상을
인류와 함께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세요.



그러면서도 사람은
자신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했어요.
이 사실을 사람이 모르게 되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듯이 교만하게 될 거예요.



내가 만든 종이학이
나와 똑 같은 사람처럼 대접을 받으려 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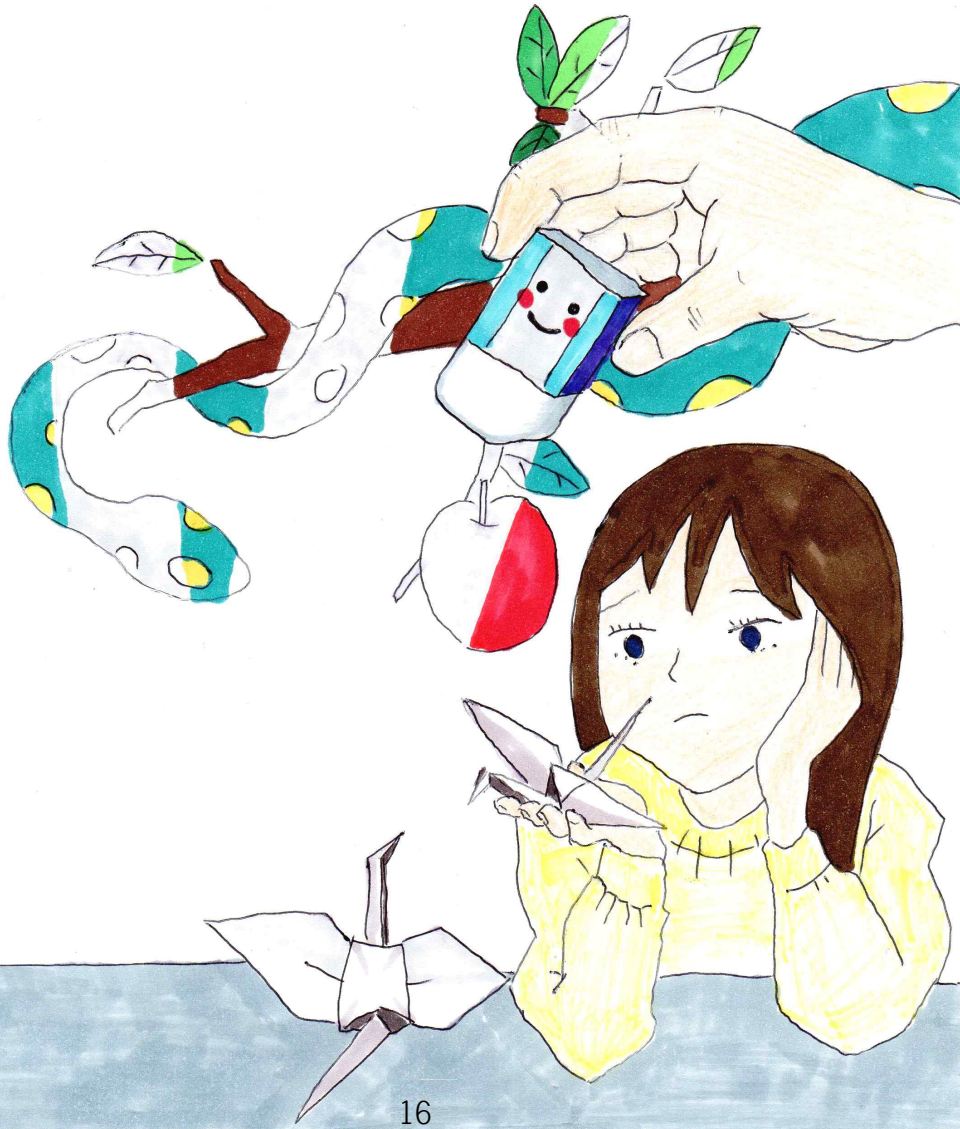
그리고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충분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생각은 마치 내가 만든 종이학이
만든 사람과 만들어진 물건 사이의 경계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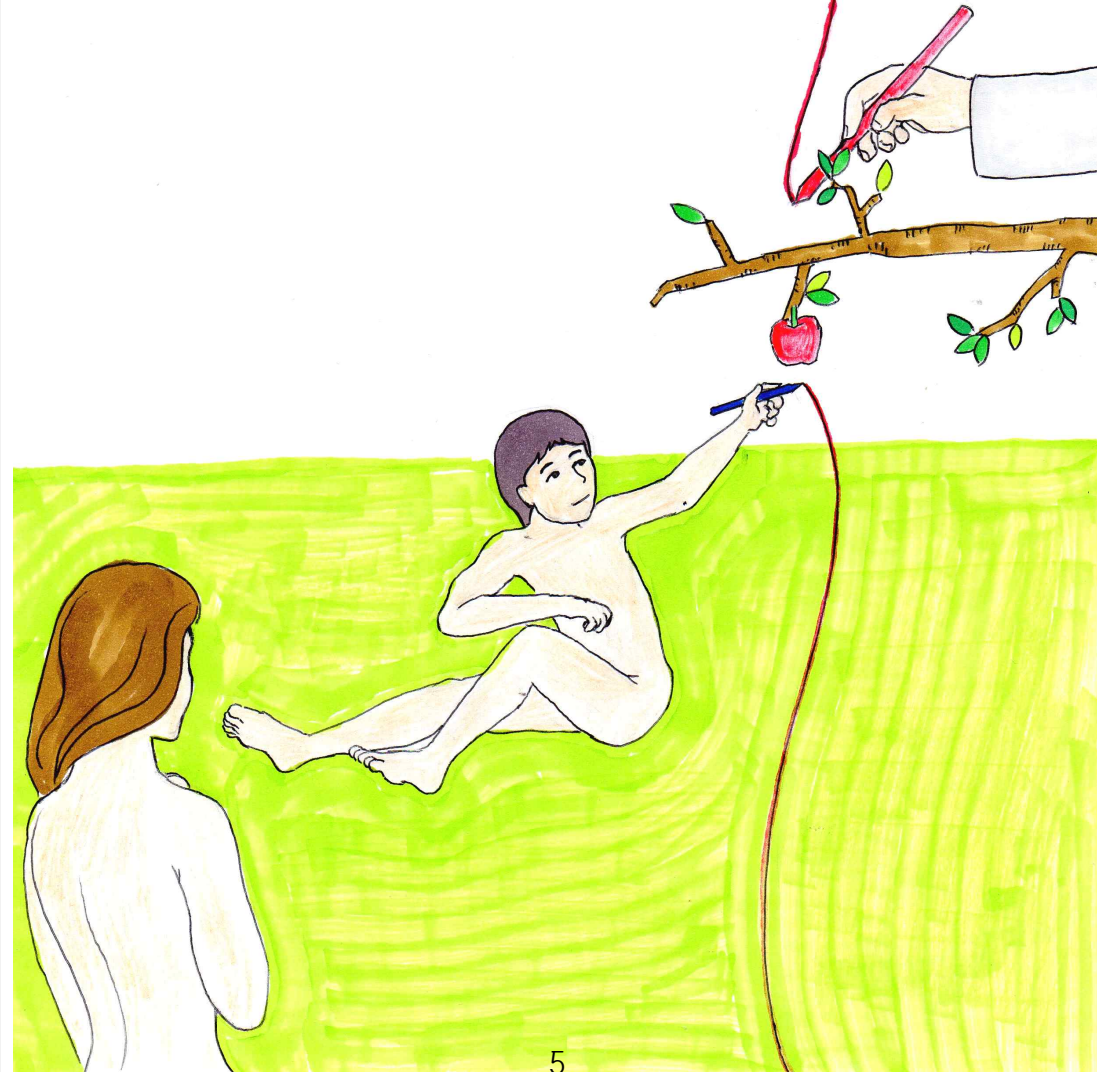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경계선을 범하지 못하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만일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그것은 바로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반역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동일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인류의 후손은 아담의 허리에 속해 있어서
아담의 죄에 함께 참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해요.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인류는
그가 범하는 죄를 똑 같이 범한 셈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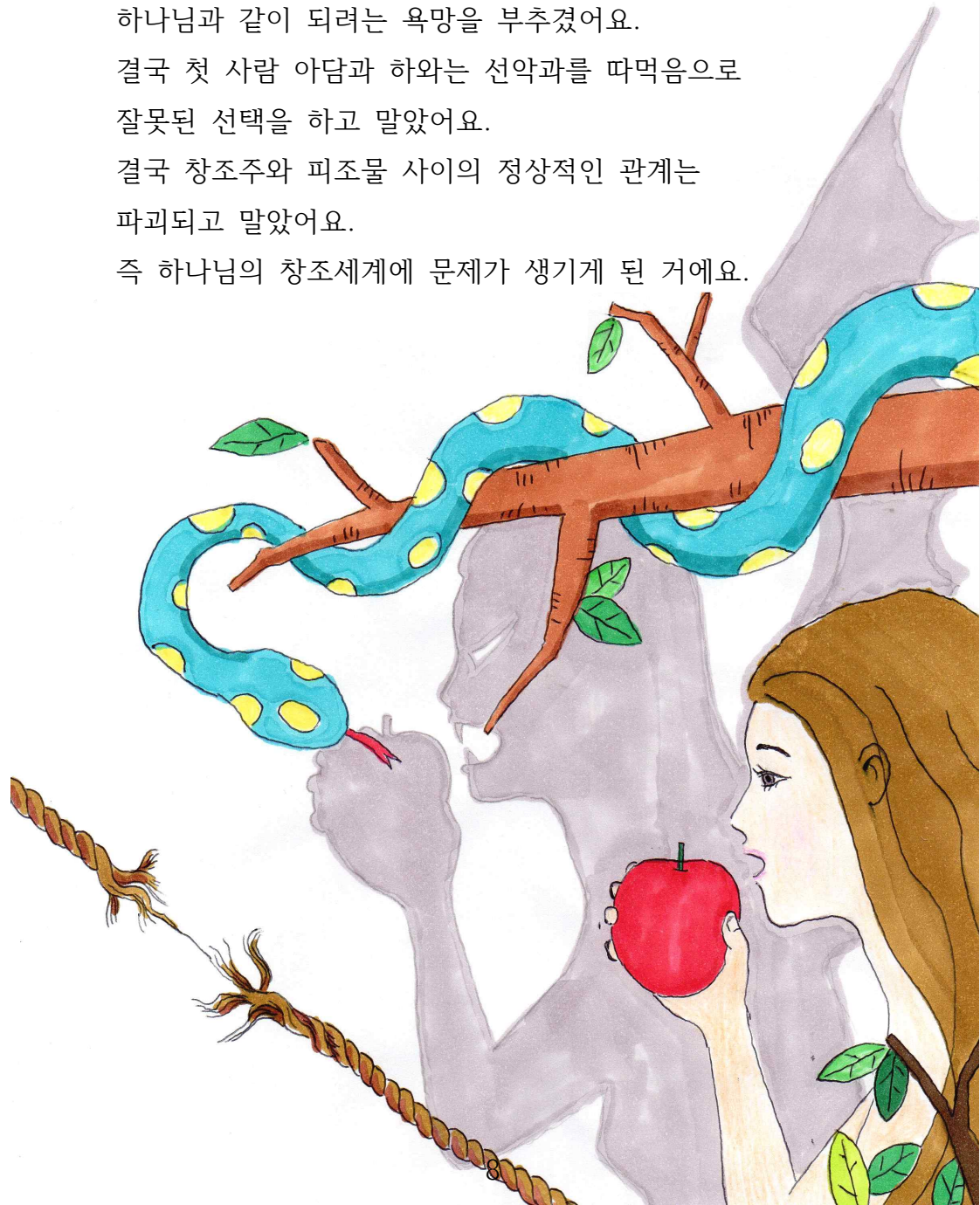
이러한 고통은
 첫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똑 같이 겪고 있는 고통이에요.
 바로 교만과 불순종의 죄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이죠.



그런데 창조세계에는 하나님께 반역하려는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는 세력이 숨어있었어요.
 그는 뱀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서
 첫 사람의 마음에 불순종의 씨앗을 심어주었어요.



뱀은 하와의 탐심을 이용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을 부추겼어요.
 결국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결국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는
 파괴되고 말았어요.
 즉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아름다운 생명을 선물로 받기 위해
 하와는 임신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실과를 얻기 위해
 아담은 노동의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벌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얻으려면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창조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첫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상을 잘 관리해야 했는데,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자,
이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고 말았어요.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나게 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이 비뚤어진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비뚤어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자기 멋대로 다스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바로 인간에게 벌을 주시고,
동시에 사람을 비롯한 파괴된 창조세계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